

중국어 ‘好(hǎo)’와 한국어 ‘좋다’의 의미 대조 연구

張晶*

目次

1. 서론
2. '好'와 '좋다'의 의미 유형
3. '好'와 '좋다'의 의미 확장 비교
4. 결론

1. 서론

단어마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거나 경우에 따라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 한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기서 한 단어가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현상을 다의 현상(polysemy)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의 현상을 보이는 단어를 다의어(a polysemic word)라고 한다. 다의 현상은 의미론 연구의 하나로서 주목 받아온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의어가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등의 인지원리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의미 확장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다른 어족에 속해 있어서 음운론,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구조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단어들이 다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2언어로서 중국어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흔히 모국어의 유사한 단어가 일으키는 간섭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 中國 黑龍江大學 韓國語學科 專任講師, 漢陽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예를 들어서 중국어 ‘好(hǎo)’는 품사적으로 보면 형용사, 부사, 명사, 연사, 감탄사, 조동사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好些”, “好多”, “好在” 등 많은 고정된 구조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다의성과 구조의 다양성으로 학습자가 실제 ‘好(hǎo)’를 사용할 때 혼란스러운 느낌이 생길 것이다. 서로 대응된 중국어와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은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본고는 사용빈도¹⁾가 매우 높은 기초어휘인 중국어 ‘好(hǎo)’와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좋다’를 초점을 두고, 이들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중국어 ‘好(hǎo)’와 한국어 ‘좋다’는 ‘훌륭하여 만족스럽다’의 원형 의미에서 출발한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해 각자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먼저 중국어 ‘好’와 한국어 ‘좋다’의 사전적 의미를 고찰하고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들의 확장 의미는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서 더 깊이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해 볼 것이다.

2. ‘好’와 ‘좋다’의 의미 유형

중국어 ‘好’와 한국어 ‘좋다’는 언어의 자연적인 발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생겨난 원형의미인 [만족성] 바탕에 더하여 많은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솜씨가 좋다’에서의 ‘좋다’는 ‘훌륭하다’의 뜻을 나타내지만 ‘성격이 좋다’에는 ‘좋다’는 ‘원만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好朋友’는 ‘좋은 친구’로 해석될 수 있고 ‘好學校’는 ‘좋은 학교’의 뜻을 가지는 동시에 ‘소문난 학교’의 뜻도 포함된다. ‘好看’는 ‘예쁘다’와 ‘재미있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²⁾. ‘好’나

1) 국립국어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5)>는 300만 어절의 어휘 분석 말뭉치를 분석하여 자모, 음절, 일반 어휘, 조사, 어미, 어절 구성, 구(句), 어휘 범주, 활용형, 규범 오류형 등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일반 어휘 통계 중에서 ‘좋다’의 순위는 51에 있고 사용빈도는 4966이어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北京語言大學教學研究所에서 편집한 <現代漢語頻率詞典>(1986)은 어휘자료 131만 개를 집계한 후, ‘好’는 형용사로 사용할 때 ‘詞次’와 ‘頻率’가 각 4026번과 30630번이나 나타나고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2) ‘這條裙子真好看.’(이 치마는 참 예쁘다.), ‘這本小說很好看.’(이 소설은 재미있다.) 등 용례가

‘좋다’는 의미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긴 확장의미(Expansion means)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들의 일정한 기본적 의미-중심적 용법에 기초하여 은유, 환유 등의 연상 작용에 의해 비유적으로 생겨나는 확장의미는 언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본고는 이들의 총괄적인 의미 비교보다는 서로 대응하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의미를 설정하고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양국의 대표적 사전에 있는 의미 기술에 기초한 사전적 의미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1) '好'의 사전적 의미 분석

‘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사전에 있는 의미부터 참고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에 사전적 분류 방식과 같이 ‘好’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토한 후 ‘好’의 의미자질을 재분류하고자 한다. 〈現代漢語八百詞〉(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好’의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와 동시에 〈現代漢語辭典〉과 〈新華字典〉 등도 참조하여 〈八百詞〉의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³⁾.

(1) '好'의 사전적 의미

현대 중국어 ‘好’는 의미와 용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八百詞〉에서는 ‘好’에 대한 의미 기술이 품사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 형용사로서의 의미 항목은 7개가 있고, 부사와 명사로서의 의미 항목은 각 2개가 있고, 조동사(助動詞)로서의 의미 항목은 1개가 있다. 여기서 한국어 형용사 ‘좋다’와 비교하기 위해 ‘好’의 형용사와 조동사의 용법만 언급하기로 한다.

중국어 사전에서의 ‘好’의 의미에 대한 사전의 분류 방식은 한국어 ‘좋다’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好’의 용법이 많음에 따라 각 사전의 ‘好’에 대한 의미 기술도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八百詞〉

있다.

3) 이하 〈現代漢語辭典〉은 〈現漢〉로, 〈新華字典〉은 〈新華〉로 약칭하기로 한다.

에서는 ‘好’의 형용사로 쓰이는 의미 항목을 6가지로 나누었는데, 주로 통사적인 정보를 많이 고려해서 기술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⁴⁾ 그 중에 ‘好’ I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항구조를 기준으로 4가지 형식을 세분화하고, 명사와 동사, 부사 등의 통사관계를 규명해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마다 ‘好’에 관련된 의미를 기술할 때는 대부분 불충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좋다’와 ‘好’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전 의미 정보에만 기대서는 해당 어휘의 전체 의미 체계를 파악하기 힘들며, 의미 체계 속의 의미 항목간의 관련성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新華〉에서 ‘好’는 ‘女子貌美(여자가 아름답다)’라는 의미 항목이 있는데 〈八百詞〉와 〈現漢〉에서는 이런 의미 항목을 찾을 수 없다. ‘아름답다’의 의미는 주로 고어(古語)에만 쓰였지만 하나의 기본의미로서 현대중국어에도 가끔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⁵⁾ 이런 의미 정보를 보완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好’의 확장의미로 파생된 의미 ‘容易(-하기 쉽다)’를 〈八百詞〉에서는 하나의 의미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現漢〉과 〈新華〉에서는 별도의 의미 항목으로 ‘容易(-하기 쉽다)’와 ‘便于, 適合(-하도록, -할 수 있도록)’을 따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의미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八百詞〉에서 好II ‘健康; 病癒(건강하다. 병이 나았다.)’는 의미를 하나로 묶었지만, 한국어 ‘좋다’와의 비교 편의를 위해 다음 표1에서 ③과 ④를 따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서 〈八百詞〉의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 절에서 ‘好’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4) 다른 두 사전의 의미 기술을 살펴보면, 〈現漢〉에서 ‘好’의 의미 항목이 14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품사별로 나누지 않고 용법대로 분류한 방식을 갖고 있다. 〈新華〉에서 ‘好’는 회의자로서 한자 ‘女’와 ‘子’를 합쳐서 만든 것이고 〈說文〉에서 ‘好, 美也.’이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 즉 ‘好’는 고대중국어 ‘여자가 아름답다.’이란 의미에서 출발하고 오늘 현대중국어 ‘착하다. 훌륭하다’의 의미로 변화 발전했다. 그리고 형용사의 의미 항목도 14개로 분류했고 용례는 주로 문언(文言)의 문장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八百詞〉의 분류 기준을 따라 하기로 한다.

5) 현대중국어에서는 ‘好皮囊’(겉모습이 아름답다), ‘好鳥’(아름다운 새)등 용법이 있다.

(2) '好'의 의미 재분류

'好'의 원형 의미에 대한 논쟁은 언어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張士俊(1985)은 "好逑" 중에 있는 '好'는 "아름다움"의 뜻이고, 虞鋼(1996)은 자형(字形)의 시점으로 볼 때 '好'는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과 관련되어 "婦人妊娠"의 뜻으로 해석됐고, 張玉春(2001)은 '好'의 원형의미를 고찰하여 "남녀가 결합해서 배우자가 됐다."로 지적했다. '好'의 사전적 의미도 다양하다. 앞 절에서 사전 분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이상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好'의 의미를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⁶⁾ 세 가지로 재분류하려고 한다. 분류 기준 중에 '호감'의 의미 자질은 '好'의 의미를 분류하는 특별한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중국어는 고립어로 어휘의 형태변화가 한국어처럼 풍부하지 못하다. 한국어 '나는 그 남자가 좋다.'에서 '좋다'는 '마음에 들다'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 '好'는 모든 의미 항목에 있어서 '마음에 들다'의 의미가 보일 수 없다. 즉 '好(hǎo)'는 '호감'의 의미 특성을 찾을 수 없다⁷⁾. 중국어에서 [호감]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喜歡'이란 단어를 쓰고 한국어 '좋아하다'와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 '양호함'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괜찮다는 뜻이며 '好人', '好事', '好意' 등 표현은 이에 해당된다. '흡족함'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넉넉하여 만족하다는 뜻이며 '儿女双全真好!'에 있는 '好'는 아들과 딸이 모두 있어서 매우 '만족하다'의 뜻이다. '적합함'은 일이나 조건 따위에 알맞음이란 뜻이며 '這種手動擋的汽車很好開'에 있는 '好開'는 '운전하기 쉽다'의 뜻이다.

이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好'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정리하여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6) 이현희(1999)에서는 한국어 '좋다'를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 '호감'이라는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좋다'의 통시적 의미기능과 통사구조를 분석했다. 여기서 '好'와 '좋다'를 편히 비교하기 위해 이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7) 그러나 거성의 '好(hào)'는 동사로서 '愛', '喜歡'의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好客', '好打扮', '好撒謊' 등 표현은 주관성이 강하며 자발적인 의미를 가진다.

<표 1> '好'의 의미 재분류

의 미	용 례	분 류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
① 女子貌美 (여자가 아름답다.)	好皮囊 (겉모습이 아름답다)	+		
② 優點多的; 令人滿意的(좋다. 훌륭하다. 만족스럽다.)	① 好辦法 (좋은 방법) ② 這本小說很好(이소설은 좋다) ③ 這首詩好在什麼地方? (이 시의 어디가 좋아요?) ④ 還是咱們一起去 (的) 好 (역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어)	+		
③ 健康(건강하다.)	他身體一直很好。(그는 항상 건강하다)	+		
④ 病癒(병이 나았다.)	病好了 (병이 나았다)		+	
⑤ 親愛; 友愛; 相好.(친하다. 사이가 좋다.)	好朋友(친한 친구)	+		
⑥ 完成(동작이 완성되다.)	饅頭蒸好了(쪄빵이 다 찌졌다)		+	
⑦ 容易(어떤 일을 하기 쉽다.)	這條路還算好走。(이 길은 걷기 좋은 편이다)			+
⑧ 便于; 宜于 (...할 수 있게)	多去几個人, 有事好商量。(일이 생기면 상의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몇 사람 더 가라)			+
⑨ 表示效果 (形象、聲音、氣味、味道、感覺等) 好。(어떤 효과, 이미지, 목소리, 향기, 맛, 느낌 등) 가 좋음을 나타낸다.	這歌很好聽。(이 노래는 매우 듣기 좋다)			+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양호함]에 속해 있는 의미 항목이 제일 많아 ①②③⑤⑨가 그에 해당한다. ④는 '병이 나았다'는 만족함을 표시하고 있어서 [흡족함]에 속해 있고 ⑦과 ⑧은 '어떤 일을 하기 쉽다 혹은 적당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적합함]에 속해 있고 ⑨도 '어떤 효과에 대한 만족할 만큼 좋음'을 나타내며 [적합함]에 속해 있다. 이 중 분류하기 애매한 의미 항목이 ⑥이다. ⑥은 동사 뒤에서 나타나고 동작의 완결을 표시하므로 [흡족함]에 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饅頭蒸好了'에서는 '好'가 동사 '蒸(찌다)'뒤에서 결과보여처럼 쓰이고 '쪄빵이 다 찌져서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 '좋다'의 사전적 의미 분석

(1) '좋다'의 사전적 의미

형용사 '좋다'는 의미 유형이 무척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전마다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대사전>(1999)⁸⁾을 바탕으로 '좋다'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연세한국어사전>과 <동아새국어사전> 등도 참조하여 <표준>의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⁹⁾.

<표준>에서의 '좋다'의 의미항목은 말뭉치 기반으로 모두 16개이다. <표준>을 중심으로 각사전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사전적 처리를 보면 '좋다'에 관한 기본적 의미자질은 [홀름함] 등과 같은 분류로 정하고 있다¹⁰⁾. <표준>과 <연세>는 [홀름함] 등과 같은 의미자질을 '좋다'라는 하나의 표제항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통 의미자질의 다의성 관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새국어>에서는 '좋다'는 개별적인 의미자질로 삼고 있는데 형용사와 감탄사의 두 개의 동형어로 분할하여 기술했다¹¹⁾. '좋다'의 의미 복잡성 때문에 사전마다 편찬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표준>의 기준에 따라 이들의 다양한 의미관계를 다의어로 처리하기로 한다.

둘째, 사전마다 개별 의미항목을 비교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중복된 의미를 배열하는 경우가 있다. <표준>에 있어서 "I ⑧(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서 길다)"와 같은 의미는 실제로 거의 쓰이지 않는 의미항목이며, "V(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논항구조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표1에서는 V를 제거하고 별개의 의미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연세>에 있어서는 '좋다'의 의미기술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¹²⁾ 의미항목 사이에 서

8) 이하 <표준어대사전>은 <표준>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9) 이하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로, <동아새국어사전>은 <새국어>로 약칭하기로 한다.

10) <연세>에서는 첫 번째 해석이 '홀름하거나 뛰어나다'이고, <새국어>에서는 세 번째 해석이 '홀름하다'이다.

11) <새국어>에서는 좋다1[형용사], 좋다2[감탄사]로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할했다.

12) <연세>에서는 우선 격들의 기준을 따라 I II III IV를 나눈 후 다시 V와 VI를 분류한 방식으로 사전적 처리 방식을 하고 있다. V는 감탄사처럼 쓰인 품사 전환 형식이고, VI는 여러 가지

로 세밀하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다'의 다의적인 의미 양상은 충분하지 않다. <연세>에서는 '넉넉하고 푸지다'의 의미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표준>과 <새국어>에서는 이 의미항목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표준>의 마지막 관용구 부분에서는 '젓줄이 좋다'를 예시하면서 '젓이 나오는 양이 많다'의 의미로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는 <연세>에서 제시한 의미 항목이 가장 세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전마다의 의미 정보 역시 충분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다.

(2) '좋다'의 의미 재분류

앞 절에서 '좋다'의 사전적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좋다'의 의미를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한다. '좋다'의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 '호감' 네 가지를 설정하여 <표준>에서의 '좋다' 의미항목을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여기서 '호감'이란 의미자질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좋아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동사 '좋아하다'와 같은 의미자질¹³⁾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다.'이란 말은 '나는 그 일을 좋아하다'와 같은 뜻으로 보일 수 있다.

이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좋다'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정리하여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좋다'의 사전적 의미 분석

의 미	용 례	분 류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	호감
I ①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훌륭하여 만족할 만하다.	품질이 좋다 집안이 좋다	+	+		

활용형으로 쓰이면서 격들을 가질 수도 없고 마치 부사처럼 쓰이는 것들이다. '좋다'를 각각 6개의 상위 그룹으로 묶은 후 그 하위에 의미항목은 모두 27개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였다.

13) 이병근(2000)에서는 '좋다'의 [호감]이란 의미자질을 통사구조 'NP₁ 은 NP₂ 를 좋아하-// 싫어하-'와 같은 파생적 대치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중국어로 보면 [회환(喜歡)]의 의미자질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I ②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성격이 좋다	+			
I ③말씨나 태도 따위가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아니할 만큼 부드럽다.	태도가 좋다 좋은 말	+			+
I ④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정상보다 나은 상태에 있다.	혈색이 좋다	+			
I ⑤('염치', '비위', '넉살' 따위를 주어로 하여) 사람이나 염치가 없거나 체면을 가리지 않다.	넉살이 좋다	+			
I ⑥날씨가 맑거나 고르다.	날씨가 좋다	+			
I ⑦('종계' 꼴로 쓰여) 넉넉하고 푸지다.	내가 일찍 시집을 갔으면 애를 둘은 종계 낳았을 것이다.	+			
I ⑧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서 길다.	술이 좋다	+			
I ⑨날짜나 기회 따위가 상스럽다.	좋은 기회	+			
II ①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	그는 집이 좋다				+
II ②감정 따위가 기쁘고 만족스럽다.	기분 좋은 웃음		+		
II ③('...이' 성분은 보조사 '도'와 함께 쓰여 '...도'로 실현되고, '...도' 대신에 '-어도'가 쓰이기도 한다)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	은혼식이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		
III 어떤 일을 하기가 쉽거나 편하다.	이곳은 살기에 좋다.			+	
IV 어떤 물질이 몸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상태에 있다.	몸에 좋은 보약			+	
V('...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주로 '사이', '금실' 따위의 명사가 '...이' 성분으로 쓰인다) 서로 친하여 어울리다.	사이가 좋다	+			

I, V에 속하는 의미 항목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양호함]에 속하고 있다. 다만 I ⑤의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넉살 자체가 뽀빠로 이미 소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함]으로 표현했다.

II의 ①은 [호감]에 해당할 수 있는데 ②③은 [흡족함]으로 통일되어 있다. II의 경우에 ①②③은 의미상으로 보면 각 의미항목에 밀접한 관계가 없지만 통사구조상으로 보면 '...이 좋다'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편찬의 편의상 분류라고 할 수 있다.

III와 IV는 [적합함]의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지니면서 '쉽거나 적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상 품사의 성질이 달라서 이들이 갈라져 있다.

(3) '好'와 '좋다'의 사전적 의미 비교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 [호감]이라는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공통적인 의미항목으로는 '好'②優點多的; 令人滿意的와 '좋다' I ①②③⑥⑨Ⅱ②, '好'③健康와 '좋다' I ④, '好'⑦容易와 '좋다'Ⅲ, '好'⑤親愛; 友愛; 相好와 '좋다'Ⅴ이고, '좋다'에만 있는 의미항목으로는 I ⑤⑦⑧Ⅱ①Ⅱ③Ⅳ이고, '好'에만 있는 의미항목으로는 ①④⑥⑧이다.

이상의 사전적 의미 비교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사전적 의미 비교

공통적인 의미항목	'好'②優點多的; 令人滿意的 '좋다' I ①②③⑥⑨Ⅱ②
	'好'③健康 '좋다' I ④
	'好'⑦容易 '좋다'Ⅲ
	'好'⑤親愛; 友愛; 相好 '좋다'Ⅴ
'좋다'에만 있는 의미항목	I ⑤⑦⑧Ⅱ①Ⅱ③Ⅳ
'好'에만 있는 의미항목	①④⑥⑧

그중에서 가장 차이가 난 항목은 [호감]의 의미자질을 비교해 볼 때 '좋다'의 Ⅱ ①'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는 중국어 동사 '喜歡'와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형용사 '好'와 서로 다른 사용방식을 보인다. 사전 분석을 통해 한국어 '좋다'의 사전 처리 기술이 중국어 '好'보다 더 세분화되고 그 상관용법이 더 풍부한 점을 밝힐 수 있다.

3. '好'와 '좋다'의 의미 확장 비교

이상에서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好'와 '좋다'의 의미를 재분류하여 제시해 보

았다. 그러나 각 사전의 의미 정보는 제한이 있고 불충실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의미 비교 연구를 더 깊이 하려면 실제 언어 자료¹⁴⁾에 기대어서 기본적인 의미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확장 의미까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적인 다의어 의미에 대한 뜻풀이는 일렬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뭉치는 포괄적이고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다음 본 장에서는 '好'와 '좋다'의 의미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의미 확장 양상의 원리와 규칙에 입각하여 이들에 관련된 적용 양상을 파악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이리하여 좀 더 깊고 체계적인 '好'와 '좋다'의 의미 비교 연구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好'와 '좋다'의 의미 확장 양상

인간은 인접성과 유사성의 인지능력에 의해서 기존 낱말의 의미를 유연하고도 창조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여기서 '인접성 인지능력'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상을 관련시키는 능력, 곧 '환유'(metonymy)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일이며, '유사성 인지능력'이란 대상과 대상 간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곧 '은유'(metaphor)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임지룡, 1999:239) 앞 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好'와 '좋다'는 다의어로서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환유'와 '은유' 등 인지적 능력을 통해 이들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 것을 보일 수 있다. 먼저 '훌륭하다', '만족스럽다'의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좋다'와 '好'의 각 의미 확장을 예로 보자.

(1) ㄱ. '좋다'의 환유적 확장:

그는 유독 자기 아내하고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다. <송기숙, 녹두장군>

ㄴ. '좋다'의 은유적 확장:

아홉수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면서 여인은 혀를 찼다. <하수산, 부초>

14) 본 고에서 '좋다'와 '好'의 실제 언어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출한 6000만어절의 <21세기 세종계획(2011.12. 수정판)>과 北京大學中國語言研究中心(북경대학중국어연구센터)에서 제출한 7억 어절의 <現代漢語CCL語料庫(2009.7.20. 수정판)>에서 추출하였다.

(2) ㄱ. '好'의 환유적 확장:

琴瑟和好〈詩經·小雅·常棣〉(부부 관계는 정이 깊고 화목하다)

ㄴ. '好'의 은유적 확장:

好肉剝膚〈聯燈會要·玃禪師〉(평지풍파를 일으키다)

(1ㄱ)과 (2ㄱ)은 '금실이 좋다'이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표현으로 환유적 방식을 통해 '부부 관계가 좋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면에 (1ㄴ)과 (2ㄴ)에서 '좋다'와 '好'의 확장 의미는 은유적 방식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1ㄴ)은 '아홉수가 안 좋아서...'의 '좋다'는 I ⑨의 의미 항목이고, 즉 '아홉수가 상스럽지 않다'이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2ㄴ) '好肉'은 '좋은 고기'가 아니라 '쉬운 일'을 비유한 것이다.

(1)과 (2)를 지적해 봤듯이 '좋다'와 '好'는 공통적인 기본의미에서 출발하여 의미를 넓히는 경로를 통해 각종 의미 확장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중에서 비슷한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이는 각 언어마다 특성이 있고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다'와 '好'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확장 양상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다의어의 의미 확장 원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하이네(Heine 1991:48)에서는 어휘의 의미 확장에는 일반적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임지룡 1997:240 재인용)

(3) PERSON>OBJECT>ACTIVITY>SPACE>TIME>QUALITY

즉 (3)은 개념이 비유적으로 확장될 경우 '사람>대상>활동>공간>시간>질'의 순서로 나타나고 나아감을 의미한다.

하이네의 인지적 의미 확장 원리를 바탕으로 임지룡(1997)에서는 한국어의 의미 확장 양상을 다시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4) ① 사람→짐승→생물→무생물 ② 구체성→추상성
 ③ 공간→시간→추상 ④ 물리적→사회적→심리적
 ⑤ 일반성→비유성→관용성 ⑥ 내용어→기능어

또한 張國憲(2006)의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현대중국어형용사의 기능과 인지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성질형용사의 의미 확장 방향을 아래 (5)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5) ① 공간의 질 > 시간의 질 ② 사물의 질 > 행위의 질
 ③ 물리적 질 > 심리적 질 ④ 구체적 질 > 추상적 질

물론 (4)와 (5)처럼 제시한 것과 같이 각 나라의 학자마다 구축한 의미 확장 양상은 다르기도 하지만 Heine의 일반적인 의미 확장 양상을 기반으로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 원리는 '사람·구체성·공간·물리적·일반성·내용어' 등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미에서 의미 확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의어가 형성된다고 하겠다.(임지용 1997:242) 즉 다의어의 의미들이 인간의 인지 원리에 의해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 확장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4)와 (5)에서 제시된 의미 확장의 양상은 한국어와 중국어 성질형용사의 어휘 의미 확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언어를 비교할 때는 맞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의 기본적인 속성과 어휘의 일반적인 의미 확장의 경로에 근거한 의미 확장 양상의 토대를 하여 '좋다'와 '好'의 의미 양상 비교의 틀을 다시 구축하고자 한다. 이리하여 이들의 의미 확장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깊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좋다'와 '好'의 의미 확장 양상의 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好'와 '좋다'의 의미 확장 양상의 틀

I	①사람→사물→행위 ②구체성→추상성 ③공간→시간 ④물리적→사회적→심리적 ⑤일반성→비유성→관용성
II	내용어→기능어

<표 4>에서 제시한 'I'의 5가지 항목은 '好'와 '좋다'의 공통적인 확장 양상으로서 구축되었고 'II'는 이들의 이질적인 항목으로서 중국어 '好'에만 있는 의미 확장 양상이다. 그중에서 I ②④⑤와 II①은 임지룡(1997)의 인지의미론의 원리를 따르

고, I ①③과 II ②는 張國憲(2006)의 중국어 형용사의 인지적인 특성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

아래는 <표 4>에서 제시한 이 틀에 기초하여 '好'와 '좋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2) 공통적인 의미 확장 양상

'好'와 '좋다'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한 것과 같이 이들의 기본의미는 '훌륭하여 만족하다'이고 환유나 은유 등 인지적 원리의 경로를 통해서 의미 확장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의 확장 의미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실제 언어자료를 통해서 먼저 이들의 공통적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 ①'은 '사람→사물→행위'의 확장이고 여기서 '사람'이 확장의 중심이 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존과 활동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형용사 '좋다'와 '好'는 '사람'의 성질과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부터 '사물', '행위'로 확장한다. 다음 예 (6)은 이와 같은 확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6) ㄱ.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 有好人的話, 介紹一下。⇒ 사람
 ㄴ. 어느 의사라도 자신의 환자에게 좋은 약을 주고 싶어할 것이다. / 任何一位醫生都想給自己的患者一份好藥。⇒ 사물
 ㄷ. 듣기 좋은 말이다. / 好聽的話。⇒ 행위

(6ㄱ-ㄷ)은 '好'가 수식언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이때에 수식을 받은 대상은 '사람→사물→행위'의 과정을 통해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람'을 기준점으로 하여 '사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중국어나 한국어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ㄷ)은 '행위'의 확장 양상을 통해 '좋다'와 '好'의 주관성(主觀性)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성이란 어휘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교체하여 둘 이상의 적용 방안을 최대한 범위로 확대하는 인지방식이고, 심리학으로 공감(empathy)을 부르기도 한다.¹⁵⁾ 중국어의 경우에는 아래 (7)

처럼 이런 주관적인 감정을 '看,聽,聞,吃,受,使(이미지, 목소리, 향기, 맛, 느낌) 등 인지심리동사 앞에서 쓰이면 '어떤 행위에서 만족할 만하다'의 의미가 나타난다.

- (7) ㄱ. 這花兒真好看。 / 이 꽃은 참 예쁘다.
 ㄴ. 新買的筆很好使。 / 새로 산 펜은 쓰기 좋다.

(7)에서 나온 '好看', '好使' 등 '好+V'구조는 고정된 형식으로 이 때는 이미 형용사보다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어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I ②'는 '구체성→추상성'의 확장 양상이다. 형용사 '좋다'와 '好'가 관형어로 대상을 수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명사로 출발하여 추상적인 의미까지 확장된다. 다음 (8)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8) ㄱ. 언젠가는 좋은 책을 만들어 그냥 드리고 싶다. / 只想寫 本好書送給你.
 ㄴ. 좋은 충고를 얻고 싶거든 노인부터 찾아가라. / 去老人 那聽取好的忠告.
 ㄷ.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 在公司受到了好的待 遇.

(8ㄱ-ㄷ)은 구체적 사물에 대한 좋음을 나타내는 데로부터 '구체성→추상성'의 의미 확장 방향에 따라 추상적 사물의 내용의 좋음을 나타낸다. 즉 '책'은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충고'와 '대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추상화된 명사항목이다.

'좋다'는 추상성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예문(8)처럼 '好'와 공통된 의미가 있으나 '좋다'만 가지는 의미도 있다. 앞<표2>에서 나온 I ⑤가 [+양호함]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은유의 과정을 거쳐, '사람이나 염치가 없거나 체면을 가리지 않다'란 폄의(貶義)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9) ㄱ. 그 남자는 오히려 넉살 좋게 싱긋이 웃어 보인다.
 *那個男人反倒厚臉皮好著笑了起來。⇒那個男人反倒厚著臉皮笑了起來.

중국어 '好'에서는 이러한 폄의적인 의미와 대응되는 확장 의미가 없다. 이 때는

15) 餘芳, 〈好的語義研究〉

‘넉살 좋게’는 ‘厚臉皮、厚顏無恥’로 해석해야 된다.

‘I ③’은 ‘공간→시간’의 확장인데 여기서의 확장 기준은 ‘공간’이다. ‘좋다’와 ‘好’는 공간을 지니는 의미를 바탕으로 시간과 관련된 의미까지 확장된다. 예를 들면 다음 (10)와 같다.

- (10) ㄱ.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向好的方向發展。
 ㄴ. 다음 주 일요일은 결혼식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이 다. / 下周日是適合結婚的好日子。
 ㄷ. 달빛이 유별나게 좋은 밤이었다.
 *月色迷人的好夜晚。⇒ 月色迷人的美好夜晚。
 ㄹ. 좋은 하루 보내세요.
 *祝您度過好的一天。⇒ 祝您度過愉快的一天。

(10ㄱ-ㄴ)은 ‘좋다’와 ‘好’가 방향에 대한 좋음을 나타낸 데로부터 ‘날짜가 상스럽다’의 파생적인 의미까지 공통적인 확장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10ㄷ-ㄹ)은 시간을 나타내는 확장경로지만 두 형용사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밤’과 ‘하루’이란 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의 기준을 나타내므로 중국어 ‘好’와 같이 쓰일 때는 ‘아름답다’, ‘즐겁다’의 뜻으로 파생되고, 즉 중국어에서 ‘美好’나 ‘愉快’에 해당한다.

‘I ④’는 ‘물리적→사회적→심리적’의 확장이다. 여기서 ‘좋다’와 ‘好’는 물리적 사물에 대한 만족함의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사회적, 심리적 대상으로 의미 확장의 경로를 진행된다. 다음 예문 (11)에서는 3가지 존재방식이 이러한 확장 양상을 따르고 있음을 제시한다.

- (11) ㄱ. 시골에서 크고 좋은 집을 하나 샀다. / 在農村買了一個又大又好的房子。
 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것 / 爲了形成好的人際關係, 所需事項
 ㄷ. 규혁은 기분이 좋아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 다. / 奎赫心情很好, 想唱支歌。

(11ㄱ-ㄷ)은 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확장 경로를 통해 보여준 ‘좋다’와 ‘好’의 공통적인 의미 양상이다. (11ㄱ)은 두 형용사의 기본의미로, ‘집’이란 물리적 사

물에 대한 좋음을 나타내고, (11ㄴ)은 '인간관계'가 사회성을 가지므로 사회적 확장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1ㄷ)은 '기분'이란 심리를 나타낸 명사와 같이 쓰여서 심리적 확장 의미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두 형용사의 심리적 의미 양상을 살펴볼 때는 '좋다'에만 있는 의미 항목이 있다. 앞<표2>에서 [호감]의 의미 자질을 가진 '좋다'의 Ⅱ①처럼 심리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좋아함을 표현할 때는 중국어에서 '喜歡'에 해당한다. 이때는 좋아하는 대상을 문장에서 목적어로 나타내고 한국어와 완전 다른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 예문 (12)에서 보듯이, '좋다'와 '好'는 서로 다른 의미를 보인다.

(12) 병규는 진이가 좋아서 매일 쫓아다닌다.

*炳奎珍怡好, 所以天天跟着她。

⇒ 炳奎喜歡珍怡, 所以天天跟着她。

여기서 '炳奎喜歡珍怡'는 타동문으로 '珍怡'는 '炳奎'이 좋아하는 대상이 되고 문장의 목적어가 된다. 그러나 '炳奎珍怡好'는 문장 안에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동작을 맡을 수 있는 서술어 성분이 없어서 비문이 된다. 이 때는 '炳奎覺得珍怡很好' 또는 '炳奎喜歡珍怡'로 표현해야 된다.

'Ⅰ⑤'는 '일반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임지룡 1997:241) '좋다'와 '好'는 일반적으로 '훌륭하여 만족하다'의 기본의미를 출발하여 은유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비유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유적 의미를 관용어로 발전되고 결국 관용성을 나타내게 된다. 아래 예문(13)과 같이 살펴보자.

(13) ㄱ. 품질이 좋다 / 質量好

ㄴ. 머리가 좋다 / 頭腦好

ㄷ. 젖줄이 좋다 / 奶水好

(13ㄱ-ㄷ)은 모두 일반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낸 예들이다. (13ㄱ)은 모두 두 형용사의 기본적인 '대상의 성질이 좋다'의 의미를 나타내

고, (13ㄴ)의 '머리가 좋다'는 실제로 사람의 신체기관인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똑똑하다'란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頭腦好'이란 말이 머리에 대한 만족함이 아니고 '충명하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자주 쓰인다. (13ㄷ)에서의 예들이 모두 '젓이 나오는 양이 많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관용표현으로 굳어진 것이다.

- (14) ㄱ. 好眼力 *좋은 눈 ⇒ 안식이 높다
 ㄴ. 好手藝 *좋은 손 ⇒ 솜씨가 좋다
 ㄷ. 好口才 *좋은 입 ⇒ 입담이 좋다
 ㄹ. 好身手 *좋은 몸 ⇒ 무예가 뛰어나다

(14ㄱ-ㄹ)은 중국어에서 '好'와 여러 가지 신체기관 명사와 같이 쓰일 때 나온 예들이다. 중국어 '好'는 '눈', '손', '입', '몸' 등 기관과 결합되어 비유적인 확장 경로를 통해 파생적인 의미가 생기고 이러한 기관들의 떠는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 (14) ㄱ. 인기가 좋다 *人氣好 ⇒ 人氣高
 ㄴ. 마음이 좋다 *心好 ⇒ 心地善良
 ㄷ. 좋은 믿음 *好信仰 ⇒ 虔誠的信仰
 ㄹ. 좋은 삶 *好生活 ⇒ 幸福的生活

(14ㄱ-ㄹ)은 한국어에서 '좋다'의 비유적 의미를 가진 예들이다. 두 언어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의 확장 의미는 포괄적으로 중국어 '好'와 모두 대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로 다시 번역한 예들에서 (14ㄱ)은 '인기가 높다'의 뜻이고, (14ㄴ)은 '마음이 착하다'의 뜻이고, (14ㄷ)은 '경건한 믿음'의 뜻이고, (14ㄹ)은 '행복한 삶'의 뜻으로 보일 수 있다.

3) 이질적인 의미 확장 양상

앞 절에서 '好'와 '좋다'의 공통적인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해 보았고, 다음 본 절에서는 두 단어의 이질적인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II'는 '내용어→기능어'의 확장인데 중국어 '好'에만 있는 것이다. 내용어(content word)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어(function word)는 보조적 기술이나 약화된 의미만 나타낸다. 중국어 '好'의 경우에는 다른 동사와 결합해서 같이 쓰일 때 기능어의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때는 어떤 동사 앞에 놓여서 '조동사(助動詞)'¹⁶⁾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 뒤에 놓여서 '보어(補語)'¹⁷⁾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어 '좋다'에는 이런 확장 양상이 없고 중국어 '好'와 이질적인 양상을 지닌다. 아래 구체적으로 '好'의 쓰임의 예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15) ㄱ. 這個事情好辦。 / 이 일은 해결하기 쉽다.
 ㄴ. 漢語好學。 / 중국어를 배우기 쉽다.

(15ㄱ-ㄴ)에서 '好'는 동사 앞에서 나타나고 이 동사와 관련된 동작을 실행하기가 '쉽다, 편리하다'의 확장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조동사처럼 쓰인 '好'는 기본적인 의미가 약화되고 확장 의미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5ㄱ)과 (15ㄴ)은 '好'가 동사 '辦(해결하다)'와 '唱(부르다)'에 보충적 의미를 더 해주고 '好辦'와 '好唱'이 마치 한 어절처럼 굳어진다.

(15)처럼 '好+V'의 구조에서는 '好'의 의미는 주로 '-하기 쉽다'이며 '好'의 수식을 받은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작의 난이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서 '好做', '好賣', '好懂', '好改' 등 어절은 '어떤 동작을 하기가 쉽다'의 뜻이며 이 때는 반의어로는 '難+V'이다.

- (16) 多去幾個人, 有事好商量。
 일이 생기면 의논하게 몇 사람 더 가라.

(16)에서 '好'도 조동사처럼 쓰인다. 이럴 때는 '好'가 일반적으로 뒤의 절에 있는 동사 앞에서 쓰이고 앞 절의 동작의 목적을 나타낸다. 즉 '몇 사람이 더 가다'이

16) 중국어에서 조동사는 동사와 결합해서 다시 새 어절을 이룬 후 원래 동사의 의미에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한다. 영어로 'Auxiliary Verb'를 부르기도 한다.

17) 중국어에서 보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 서술어의 결과나 상태를 나타낸다. 영어로 'complement'를 부르기도 한다.

란 동작의 목적은 바로 '일이 생기면 의논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好'가 원래의 뜻이 거의 사라지고 보조적 역할만 담당하는 것을 보인다.

- (17) ㄱ. 文章已經寫好了。/ 글을 벌써 다 썼다.
 ㄴ. 我們約好了5點見面。/ 우리는 5시에 만나기로 약속 했다.

(17ㄱ-ㄴ)은 '好'가 결과보어로 쓰인 예들이다. '好'는 '완성하다'이란 확장 의미를 가지고 동사 뒤에 쓰여서 동작이 완결된 기능을 맡고 있다. (17ㄱ)은 동사 '寫(쓰다)'뒤에서 나타나고 '쓰다'이란 동작이 끝났다는 뜻이며, (17ㄴ)은 동사 '約(약속하다)'뒤에서 나타나고 약속 시간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好'의 기본 의미 거의 보이지 않고 기능어로서 파생적인 의미만 나타난다.

- (18) 站好, 別蹲下。/ 쪼그리고 앉지 말고 똑바로 서라.

(18)은 '好'가 정도보어로 쓰인 예들이다. 여기서 '好'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상태성을 나타낸다. '好'는 동사 '站(서다)'와 결합돼서 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뜻이다. 또한 '拿好', '捧好' 등 어절도 있다.

(17)과 (18)의 'V+好'구조에서는 '好'는 주로 '동작의 완결(完結)'과 '동작의 보완(完善)'이란 의미기능을 가진다.

이상은 '好'은 기능어로서 한국어 '좋다'와의 이질적인 확장 양상을 분석했다. 여기서 '好'의 조동사 역할과 보어로 쓰인 경우만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好'는 부사, 감탄사 등 품사로 쓰일 때는 더 많은 통사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이것은 향후의 과제로 남길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한국어 '좋다'와 중국어 '好(hǎo)'를 선정하고 그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였다. 위에서 분석

한 결과를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기존의 사전적인 의미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좋다'와 중국어 '好'의 의미를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 [호감]이라는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공통적인 의미항목으로는 '好' ②優點多的; 令人滿意的와 '좋다' I ①②③⑥⑨ II ②, '好' ③健康와 '좋다' I ④, '好' ⑦容易와 '좋다' III, '好' ⑤親愛; 友愛; 相好와 '좋다' V이고, '좋다'에만 있는 의미항목으로는 I ⑤⑦⑧ II ① II ③ IV이고, '好'에만 있는 의미항목으로는 ①④⑥⑧이다. 그중에서 가장 차이가 난 항목은 [호감]의 의미자질을 비교해 볼 때 '좋다'의 II ①'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는 중국어 동사 '喜歡'와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형용사 '好'와 서로 다른 사용방식을 보인다. 사전 분석을 통해 한국어 '좋다'의 사전 처리 기술이 중국어 '好'보다 더 세분화 되고 그 상관용법이 더 풍부한 점을 밝힐 수 있다.

그 다음은 한국어 '좋다'와 중국어 '好'의 의미 비교를 더 깊게 이루어지려고 해서 인지의미론의 원리를 따라 그 의미 확장 양상의 틀을 구축했다. 일반적으로 의미 확장의 방향은 '사람·구체성·공간·물리적·일반성·내용어'인데 마찬가지로 형용사 '좋다'와 '好'도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1세기 세종계획 6000만 어절 말뭉치와 北京大學中國語言研究中心에서 제출한 7억 어절의 <現代漢語CCL語料庫>를 이용해서 '좋다'와 '好'의 실제 언어 자료를 파악하고 그 의미 확장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좋다'와 '好'는 '만족하다. 훌륭하다'이란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의미 확장 양상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의미 확장 경로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공통점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은유와 환유 등 확장 과정을 통해 많은 비유적인 의미와 관용적인 의미가 생겼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굳어진 관용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頭腦好(머리가 좋다)", "奶水好(젖줄이 좋다)" 등 바로 그 예이다. 하지만 '내용어→기능어'의 확장에서 '좋다'와 '好'가 이질적인 확장 양상을 보여준다. '좋다'는 기능어로서 어떤 동사 앞에 놓여서 '조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동사 뒤에 놓여서 '결과보어'처럼 쓰일 수도 있다. "這個事情好辦", "文章已經寫好了" 등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통사적인 특성은 한국어 '좋다'에는 없는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른 어족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차이점이 많이 나타난다. 양국에서 한국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의어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일은 모든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특히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형용사 '좋다'와 '好'의 의미적 상호관계를 확인시키고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국립국어원 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서울: 국립국어원, 2005.
- 김아영, 〈'好(不) 容易'의 의미 변화 연구〉, 〈中國語文學誌〉10, 중국어문학회, 2001.
- 김광해,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서울: 집문당, 1995.
-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 역락, 2005.
- 김종택, 〈국어 어휘론〉, 서울: 탑출판사, 1992.
- 노순점, 〈중국어 형용사의 어법특징 및 기능 - 한국에서의 중국어 형용사교육〉, 〈순천향 인문과학논총〉11,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맹춘영, 〈漢語的"難易"結構淺析 -以"NP+好V"爲中心〉, 〈中國語文學誌〉30, 중국어문학회, 2009.
- 박종한, 〈인지문법에 의한 현대중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5, 한국중국어언어학회, 1997.
- 박준하·김병선, 〈(한국어)형용사사전〉, 서울: 계명문화사, 1991.
- 신현숙, 〈한국어 의미 확장과 한국어 사용자의 인지 모형〉, 〈한국언어문 화학〉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편,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8.
- 유현경,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8.
-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5.
- 이병근,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2000.
- 이현희, 〈'좋다'구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진단학보〉87, 진단학회, 1999.
- 이지현, 〈현대 중국어 중간 구문의 인지 의미 분석 -"好+V" 형식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26, 중국어문학회, 2011.
-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7.
- 정인수, 〈국어 형용사의 의미 자질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정호성,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형용사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1.
-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 編, 〈現代漢語頻率詞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6.

- 馬建忠,《馬氏文通》,北京:商務印書館,1898.
- 馬清華,《詞匯語法化的動因》,《漢語學習》2,2003.
- 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北京:商務印書館,1980.
- 李英哲,《實用漢語語法》,北京: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0.
- 魏建功 主編,《新華字典》,北京:商務印書館,2011.
- 虞鋼,《怎樣才算“好”?》,《咬文嚼字》5,1996.
- 餘芳,《“好”的語義研究》,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8.
- 張國憲,《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6.
- 張國憲,《現代漢語形容詞的典型特征》,《中國語文》278,2000.
- 張明宇,《漢字“好”的語義功能研究》,上海外國語大學碩士學位論文,2007.
- 張玉春,《釋“好”》,《東北師範大學學報》4,2001.
- 趙元任,《國語語法:中國話的語法》,台北:學海出版社,1996.
- 杰弗里·N·利奇 著,李瑞華 譯,《語義學》,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1987.
-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辭典編輯室 編,《現代漢語辭典》,北京:商務印書館,1978.
- Heine, B.,Claudi, U. & Hünnemeyer, F,《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Abstract

The Contrast on the Adjective '좋다' and 'hao(好)' of the Meanings

Zhang, Jing

The study focused on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좋다' in the Korean and '好' in Chinese Languages. First we contrast the same meanings and different meanings of two words in the modern dictionaries. Then we searched the same points and differences of '좋다' and '好' under the basic theories of the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end, we searched and analyzed the mode of meaning expanding and found out the same mode expanding and the different mode expanding. The thesis will provide a new study methods of polysemy words and it will also facilitate the Korean and Chinese language learners.

Key words : '좋다', 'hao', The Meaning of Dictionary, The Mode of Expanding

투 고 일 : 2015. 1. 10. / 심 사 일 : 2015. 1. 15. ~ 2015. 2. 15. / 게재확정일 : 2015. 2. 16.
